

제276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



Ⅰ 국민의힘 유성구 제3선거구 Ⅰ

조원휘 의원



“대한민국 과학수도의 격에 맞는
대덕특구지역에 대한
경관행정이 필요합니다.”

시정질문과 답변내용(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조 원 회 의 원

◎ 조원회 의원

국민의힘 유성구 제3선거구 신성동, 노은2동, 노은3동 지역구 조원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의 핵심 공간인 대덕특구 지역에 대한 경관관리와 과학도시의 격에 맞는 공간 조성 필요성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간 대전시의 이미지가 과학수도의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제적으로는 소비도시, 문화적으로는 노잼도시 이런 평가를 받았었지요.

그런데 민선 8기 대전시정의 정책을 지켜보니까 경제·산업 분야는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문화·관광 분야는 참신하고 내실 있는 것 같습니다.

가히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2024년은 대전시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해입니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2048 그랜드플랜이 실행에 옮겨질 것이고 대전 경제·산업 진흥의 동력이 될 대덕특구가 지역과 함께 새로운 50년을 열어갈 출발점이 되는 해가 바로 2024년입니다.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가 되려면 무엇보다 경제와 산업이 융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은 기술력과 인적자본은 풍부하지만 취약한 산업자본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산업용지도 타 시·도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했었지요.

그런데 교촌동 주변 160만 평이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기업금융 중심의 지역은행 설립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의 상장기업 수가 57개로 대구광역시를 추월했으며 안산국방첨단산업단지 조성, 전민·탑립지구 산업단지 개발, 문화예술 복합단지 조성 등 2048 그랜드플랜 하에 경제도시, 문화도시, 미래도시, 상생도시, 균형도시를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하기지구 산업단지가 정부의 타당성 심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제 발표한 메가 충청 스퀘어 49층 트윈타워는 대전의 명품 랜드마크와 대전역세권 개발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기대가 큼니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다른 요소들은 상당히 노력도 하고 있고 성과도 얻었습니다.

최근 대전시는 도시브랜드 평판에서 3위에 랭크되며 도시브랜드화와 도시마케팅 측면에서도 성과를 냈고, 대전아트파크 기획디자인 국제지명공모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덕특구 지역 경관은 대한민국 과학수도의 격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관을 강조하는 이유는 경관이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덕특구라는 넓은 공간의 곳곳이 멋진 경관으로 가득 차있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명료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 랜드마크가 없다는 사실 역시 아쉬운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덕특구의 중요한 거점지역이라 할 수 있는 북대전IC 주변과 도룡동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에 대해 경관행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간으로 북대전IC 주변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케팅에서는 이를 초두효과라고 하는데 처음 받은 인상이나 정보가 지속적으로 다음 단계의 사고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초두효과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과학도시 대전의 첫인상을 줄 수 있는 상징물이나 공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덕특구가 대전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대덕특구를 제외하면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가꾼 과학도시의 자산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경쟁력은 과학도시다움에 있고 그렇기에 과학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도시의 경관자산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입지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잘 활용해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경관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북대전IC는 대덕특구의 관문이자 과학비즈니스벨트 내의 중이온가속기와 외국인 투자지역을 비롯한 산업시설의 초입이며 대전의 주요 산업 거점들의 한복판에 위치한 곳입니다.

연 1천만 대 이상의 차량이 북대전톨게이트로 출입합니다.

이는 관내 9개 톨게이트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이고요, 장래에 용산지구, 전민·탑립지구 등의 개발이 완료되면 신탄진톨게이트보다 교통량이 많아질 것이고 서대전 톨게이트와 비슷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렇게 북대전IC는 기능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입지적 가치가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북대전IC의 경관과 주변여건은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이미지를 주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관련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14시 09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13분 영상자료 종료)

시장님 영상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경관행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셨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북대전IC에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동안 보이는 경관은 목가적이고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과학도시 대전의 관문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하고 지저분합니다.

북대전IC 주변의 저 넓은 부지에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비즈니스 공간과 자연이 융합된 도시숲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대전IC 만남의 광장이 현재 조성되어 있긴 하지만 부지가 협소해 상시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만남의 광장 주차장과 시외·공항버스정류소가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광장에서 북대전IC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거의 1km를 내려가서 유턴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북대전IC 쪽에 만남의 광장 및 주차공간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대전IC 시외 및 공항버스정류소의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보행구간 일부를 점유하고 있어 행인들의 불편도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베이가 아닌 일반 차도 위에 정차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흐름에도 방해가 되고 안전사고의 발생가능성도 있습니다.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 시설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상이 되는 공간은 도룡동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입니다.

도룡동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는 대덕특구의 중추관리기능 밀집지역인 도룡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전 마이스산업의 거점이자 최근 선정된 야간관광 특화도시의 핵심 권역이기도 합니다.

대전 관내의 IC 중 도룡지구와 가장 인접한 곳이 북대전IC입니다.
유성IC보다 대략 1km 정도 더 가까워요.

대덕특구의 관문인 북대전IC를 통해 도룡지구로 오기 위해 반드시 지나게 되는 길이 대덕대로입니다.

대덕대로를 따라 도룡지구로 진입하다 보면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경관이 눈에 들어옵니다.

1979년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원들의 숙소 용도로 조성된 아파트인데요, 통상 공동관리 아파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오면서 미관을 저해하고 치안을 위협하는 골칫덩어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곳이 어떤 상태인지 다녀와 봤는데요.

관련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4시 17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19분 영상자료 종료)

도룡 지구는 대덕특구의 중심거점이자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그 한복판에 10년이 넘도록 아무도 살지 않는 흉물스러운 공동주택단지가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복잡한 소유관계만큼이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지만 대덕특구 육성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온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던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민선 8기 시정에서 부지 소유권을 가진 7개 출연연구기관과 공동관리 아파트 부지의 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셨어요.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협약이 잘 이행되어 지역의 오랜 숙원과 체증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 작년 10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의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업무협약 내용에 따르면 대전시가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일부를 매입하기로 했지요, 매입부지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려는지 운영전략에 대한 시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는 사유지로 현재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없습니다.

관리상의 틈을 이용해서 외부인들이 출입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리를 깨고 창문을 열고 옥상에 올라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외부의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게 맞지만 관리직원 2명이 격일제로 순찰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주변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버스정류소에 빨리 가기 위해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내를 가로질러

다니고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사진으로 보시는 부분에서 하얗게 음영처리한 부분이 국유지입니다.

수목이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인도까지 뻗어있어 보행에도 불편하고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업무협약이 체결되긴 했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행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때까지 이곳을 지금과 같이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공동관리아파트 부지의 안전 및 미관 관리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조원희 부의장님께서 북대전IC 주변 도시숲 조성 및 기능 고도화 그리고 도룡동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개발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평소에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교통정책과 공원녹지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는 조원희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북대전IC 주변 부지 도시숲 조성 방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북대전IC 주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IC 주변 좌우, 전면 부분 전체를 체계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마련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쉼터 조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검토를 했습니다.

북대전IC 주변이 과학특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사실 북대전IC 주변을 잘 가꾸는 것도 대전시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또 대덕특구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 시민들에게도 주변 환경을 잘 개선하는 것이 이용자 편의시설과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을 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포화상태인 북대전IC 만남의 광장 기능을 보강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쉼터 역할, 교통 혼잡 방지, 탄소중립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해 2030 대전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 기본계획 재정비에 대한 재정비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북대전IC 주변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시설 또 여러 가지 결정, 신규 공원 지정, 여러 가지 유형 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대전IC 만남의 공원 조성하는 데 현재로 보면 한 560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보상비가 한 165억, 조성비가 한 395억쯤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재원은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이나 기후대응도시숲 등 국비를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명소화하는 문제 또 과학도시의 상징을 도입하는 문제, 휴게공간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문제 등 다양한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대전IC 기존 만남의 광장 주차면수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도 북대전IC 만남의 광장은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더 가꾸면서 시민의 휴식과 IC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경관광장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기존의 녹지면적을 축소하고 주차장을 확대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현재 포화상태인 만남의 광장 기능을 보강하면서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한 공간 제공을 위해서 북대전IC 진입구 우측 부지를 신규 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시 관문의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효율적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북대전IC 만남의 광장에 차를 주차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있는데 생각보다 거의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평상시에 여러 가지 견인 조치나 이중주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북대전IC 시외버스정류소 시설개선과 관련해서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여기에 시외버스정류소가 있는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다니면서도, 많이 다녔는데 시외버스정류소가 한 번도 눈에 들어온 적이 없어서 이걸 보면서 이 시설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단지 신규 공원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신규 공원을 개편하기 전이라도 일부 낡은 시설은, 지금 이 정류소 운영주체가 주식회사 금남고속입니다.

금남고속인데 여기 보니까 현재 3개 노선에 43회 운행을 하더라고요.

하루에 평균 67명 정도가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불편해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설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지나면서 꼭 여기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북대전IC 주변 도시숲 조성 사업 관계에서 운송사업자와 협력해서 위치나 편의시설 등을 개선해서 아주 쾌적한 시외버스정류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관리아파트 부지 활용 업무협약 체결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1979년도 지어진 공동관리아파트가 해외의 과학자 정주시설로 사용해 오던 중에 시설이 노후화되고 안전 등의 사유로 2012년에 거주하는 분들의 세대 퇴거 후에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작년 초인가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봐서, 아까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어떻게 하면 이걸 좋은 시설로 탈바꿈시킬까 이런 생각만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안전 생각을, 그날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안전에 좀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미처 못 했는데요, 오늘 보면서 개발되기 전까지라도 안전 문제를 챙겨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중심으로 해서 국비 지원 신청 등을 하고 다양한 개발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계속 탈락해서 장기표류로 방치돼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경제과학부시장과 함께 둘러보고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아주 가치 있는 시설이고 그래서 이렇게 놔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지난해 10월 대덕특구 50주년을 맞아서 NST와 특구진흥재단, 7개 출연연 그리고 공동 관리아파트 부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했고 이후에 업무협약을 근거로 해서 시와 유성구 또 NST, 특구진흥재단, 대전도시공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좀 더 빠르게 진척시켜서 최적의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적극적으로, 명품지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좀 전에 걱정해 주신 것처럼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해서 외부인들이 출입한다든가 특히 청소년들 출입함으로써 우범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관리아파트 소유기관인 7개 출연연이 그동안 재원을 마련해서 관리소장과 직원 2명을 상시 고용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외부에서 출입하기가 쉽지 않도록 출입구 전체를 차단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공동관리아파트 개발계획이 있었다는 핏말을 붙여서 이 안에 진입을 막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필요하면 CCTV도 더

보강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또 환경정화 방안도 해서 환경녹지국하고 이걸 잘해서 환경정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매입 예정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추진전략도 물어보셨는데요.

전체 개발규모는 평수로 약 8천 평 정도 됩니다, 2만 6,292㎡니까.

또 시에서 5천 평을 매입해서 양자연구 등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신성장동력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나머지 3천 평 정도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청년 그리고 해외 유치 과학자들을 위한 정주시설 250세대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시 매입 예정부지는 K-켄달스퀘어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방안 등 해당 공간을 다기능 고밀도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 조성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도 공모사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업과 행정적 지원을 통해 대덕특구의 상징적 공간으로 재창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징적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데 결국 시간의 싸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이 도시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보고 앞으로 더욱더 속도를 높여서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